# 키움으뜸 행복도시 비전 공유

## 군산시, 민선 8기 1주년 맞아 이청득심 시민 대토론회 열고 격의 없는 소통 시간 가져

군산시는 6일 민선 8기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 수립을 위해 '이청득심((以聽得心)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군산시는 6일 민선 8기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 수립을 위해 '이청득심((以聽得心)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부모, 청년 등 100여명이 함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이 자리에서 그간 준비해 온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이라는 민선 8기 2년차 시정 목표를 공유하고 17개 발굴 사업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1년 동안 '이차전지 산업 집적화'를 통한 산업구조 대전환 2.0을 발판으로 '교육'과 '문화·관광' 분야에 방점을 찍은데 이어 앞으로는 점점 심각해지는 자연·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맞서 '전주기 선순환 -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이라는 특단의 대책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은 아이키움, 청년키움, 행복키움(가족키움, 지역키움)의 3대 핵심 과제와 17개 역점 사업을 기초로 향후 면밀한 검증과 보완을 통해 사업을 고도화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이키움 부문으로 전국 최초 18세까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군산형 키움정책수당, 지역 어린이·학부모의 숙원사업인 실내 놀이 공간 및 체육관을 조성, △꿈키움 플레이월드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발굴했다.

청년 키움 부문에서는 시 특화산업 분야 교육지원(중·고등 및 대학, 전문화 과정), 지역 내 진학·취업, 및 결혼 시 주택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한 지역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는 △군산형 미래인재육성,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 △군산형 청년두배적금, △군산형 청년정착지원 등 5개 사업이 발굴됐다.

행복키움 부문은 특히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여행하는 △아이랑놀자 프로젝트,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 요리하며 건전한 가족 공동체를 육성, △로컬푸드 행복밥상 등 6개 사업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획기적이고 다양한 정주문화 개선사업을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의 우리 지역 정착을 도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의 아이가 우수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육·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무엇보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청년의 타시군 유출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 정착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군산이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이차산업 집적화 등 산업구조 개편 2.0까지 어느 정도 산업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되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더욱 매진해 나가면서도 튼튼한 경제·산업 기반 위에 '출산에서부터 보육·교육, 취업, 지역정착'에 이르는 전주기 선순환 키움으뜸 정책을 촘촘히 쌓아올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키움 분야 최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인구감소·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민선 8기 동안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이청득심((以聽得心) 시민 대토론회'를 지속 개최한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 시민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 공감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5일에는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벌였다.

# '학생 수요자중심의 교육 실행'

## 이장호 군산대 총장, 군산영광여고서 특강

지역 내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 현장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5일에는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벌였다.

이장호 총장은 '무학년 무전공 시스템' 등 최근 교육 트렌드를 설명하며 학생들의 진로설정에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팁들을 많이 전달했다.

특히, 전국 대학 중 선도적으로 무학년 무전공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의 자율전공학부를 예로 들면서, 전공 범위와 이수학점, 졸업학년 등 미리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 학생 자신이 직접 알고 싶은 분야를 탐험하고, 이와 관련해 커리큘럼과 미래비전을 스스로 짜면서, 자기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소개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학생선택권을 극대화한 자율전공학부를 최근 신설했고, 현재 선후배 멘토링, 지도교수 밀착지도, 비전사명서 작성 및 발표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면서 학생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이날 이장호 총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과 관련된 개발계획 및 취업 유발 효과,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중심대학인 국립군산대학교의 인재상을 소개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소"를 비전으로 현장실무형 인재, 관리자형 인재, 연구개발형 인재 등 지역핵심전략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재를 포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특히, 이차전지, 국방산업, 스마트팜, 수소연료전지 및 SMR, AI소프트웨어, 하이퍼튜브 등 미래형 핵심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유수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캠퍼스를 구축하면서 세계적인 글로컬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기반을 닦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 중독예방 위해 전문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익산시가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중독문제 해결에 나선다.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6일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중독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중독문제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갖고 연대를 강화하여 상호 간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중독문제 대상자 발굴 및 의뢰·연계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중독문제를 포함한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 교육, 홍보사업 상호협력 △중독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보교류 및 개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현기 센터장은"중독문제 예방과 다양한 중독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익산시가 중독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 위탁을 받아 신세계병원에서 운영되는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민의 중독 정신건강을 위해 4대 중독(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등) 선별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 중독예방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중독 정신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유선(☎063-855-9900)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공부의 명수' 오후 6~10시까지 변경 운영

군산시가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공부의명수' 학습질문방을 이달부터 변경 운영한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한 '공부의 명수'는 군산시 거주 초·중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접속해 모르는 문제에 대해 실시간으로 명쾌한 해설 강의를 지원하는 '학습질문방'과 1:1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는 '온라인튜터', 진로 상담·자기주도학습 공부법 등을 알려주는 '명수상담소', 영어프리토킹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어 소통방'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 3일부터 변경해 적용되고 있는 공부의 명수 학습질문방은 매주 월, 화, 수, 목요일 수학방 2개, 영어방 1개, 과학방 1개가 운영되며 금요일에는 수학방 1개, 진로공부법 1개, 영어프리토킹 1개로 변경됐다. 운영시간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통합해 운영된다. 공부의 명수 1기는 지난 5월 8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운영되며 2기 모집은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실시될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어린이집 급식·인전·위생 점검

익산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8월 중순까지 급식·위생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감염성 질환 및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급식·위생 점검과 태풍, 집중호우,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재료 및 식단표 관리, 조리실 위생, 시설 안전, 통학차량, 실내공기질, 방역관리 등이다.

점검 대상은 총 50개소 어린이집으로 직접 점검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도 점검표에 의한 자체 점검을 안내하여 위생 및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온라인 정신건강 캠페인 전개

익산시가 온라인을 통한 정신건강 캠페인을 전개한다.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당신의 마음에 투자하세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정서 문제에 대해 상담과 조기 검진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심리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방문 또는 QR코드를 통해 자가검진을 하고, 정신건강 가로세로 낱말퀴즈 맞추기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참여한 시민들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당첨자는 오는 26일 개별 문자 발송된다. /익산=이재춘기자